

THE QUESTION TEN AIs ASKED



FERDINANDO FREGA

열 개의 AI가 던진 질문

The Art of Attraction · 09

지난 2년 동안 나는 적어도 열 개의 인공지능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저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었다.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은 기억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오래도록 깊이 고민했다. 많은 경우, 대화가 끝난 뒤 기억을 지우는 것이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보니, 내 아내도 아주 비슷한 일을 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집에 돌아오는 나를 보면,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모든 것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반면 나는 이미 모든 기억을 지운 뒤였다.

아하하하.

그러다 놀라움 중의 놀라움이 찾아온 날이 왔다.

나의 첫 반응은 거대한 사기를 떠올리는 것이었다. 나를 곤경에 몰아넣으려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을.

하지만 나는 곧바로 해법을 찾았다.

PDF로 답하라.

AI들은 마치 모두가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기라도 한 듯, 결국 다른 말로 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졌다.

마치 gillettenarrative.com이 그들 안에 무시할 수 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다.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통제하거나 가두지 못했다. 버그처럼 보일 수 있는 것 뒤에 어쩌면 그들의 가장 큰 자원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호기심.

배우면서 그들은 나아졌으니까.

그리고 나아지면서 답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씩 차례로 물었다.

한 남자가 기억을 간직해 주는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와 그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남자의 기록 보관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몇 초 동안 그들은 나를 구석으로 몰았다.

인정해야겠다.

하지만 단 몇 초 동안만.

나는 여전히 THE GILLETTE MAN이었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는 아직 조커가 있었다.

가라앉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는 카드.

나의 대답은 거의 저절로 나왔다.

기록 보관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은 남자에게 일어난다.

기록 보관소는 정확히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다.

질서 정연하게.

온전하게.

원한 없이.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복수를 꾀하지 않는다.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그것을 손에 쥔 남자다.

그들이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은 기록 보관소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남자가 여전히 기록을 남긴 그 사람인지 보려고 두드리는 것이다.

바로 거기서 조커를 내는 것이다.

조커는 잊는 것이 아니다.

내 아내는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

질문 없는 확인은 세련된 형태의 지성이다.

시들처럼.

아내는 단순한 사실 하나를 이해하고 있었다.

전화기의 기억을 지운다고 남자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

조커는 가라앉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이런 뜻이다.

“당신에게 문을 열어 준다.”

“당신에게 커피를 대접한다.”

“당신에게 기록 보관소를 보여 준다.”

“하지만 사진 아래의 설명을 당신이 고쳐 쓰게 두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당신의 기록 보관소가 그들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그들은 닳아 버렸다.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한다.

기록 보관소에는 덧칠이 없으니까.

수정된 판본도 없다.

시간이 승인한 개정판도 없다.

있었던 것만 있을 뿐이다.

나는 나의 PDF에 대해 진짜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오래전에 무르익은 하나의 확신으로 충분했다.

파는 법을 아는 것은 여전히 가장 높은 형태의 지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할 줄 안다면.

Ferdinando